

한국마사회, 25일 소외계층 차량지원 ‘국민드림마차’ 전달식

말과 함께 영車영車! 농어촌 아이들의 발이 되겠소

‘사랑의 황금마차’ 사업 업그레이드
아동복지시설 36곳에 승합차 지원
기부달리기 ‘국민드림Run’ 행사도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의 소외계층 차량지원 사업인 ‘사랑의 황금마차’가 ‘국민드림마차’로 업그레이드됐다.

한국마사회는 2018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국민드림마차 전달식을 개최한다. 국민드림마차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소외계층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2004년부터 10년간 농어촌 지역에 900여 대의 차량을 지원한 사회공헌 사업 ‘사랑의 황금마차’의 새로운 브랜드다. 2014년도부터 잠정 중단됐지만 이번엔 재추진을 결정했다.

‘말과 함께 영차영차’를 슬로건으로 한국마사회 사업장 소재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2인승 승합차를 지원한다. 7월부터 공모를 거쳐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중 36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국민드림마차 전달식은 단순 차량 전달이 아닌 한국마사회 임직원과 수혜시



한국마사회는 25일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12인승 승합차를 지원하는 국민드림마차 전달식을 개최한다. 2004년부터 10년간 실시한 농어촌 지역 차량 지원 사업인 ‘사랑의 황금마차’를 업그레이드했다. 사진은 2011년 사랑의 황금마차 전달식 모습.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설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로 계획됐다. 당일 오후 4시 36대의 차량 전달식 이후에는 한국마사회 임직원과 수혜시설 관계자들이 함께 기부달리기 ‘국민드림Run’에 참가한다. 한국마사회는 렛츠런파크 서울 경주로 1800m를 달리고, 참여인원수의 2배만큼 지역 아동센터에 운동화를 기부할 예정이다.

10월 넷째 주인 2018 렛츠런 국민드림주간을 맞아 배우 박철민이 사회를 보고 심영섭 영화평론가, 천진기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김도영 SK사회공헌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국민드림 토크쇼도 25일에 열린다. 24일 ‘렛츠런엔젤스테이’에는 1분부 1촌 봉사활동을, 27일에는 대고객 먹거리 증정행사, 28일에는 국민드림 기부 특별경주가 개최된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말은 예로부터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다. 이제 국민드림마차로 한국마사회가 지역사회의 발이 될 것”이라며, “올해 재추진을 시작으로 향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렛츠런파크 서울 제주도 테마 축제



한국마사회는 20일부터 2일간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제주도 테마 축제(사진)를 한다. 21일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GⅢ)를 기념한 이번 축제에는 초대형 감귤 하르방

과 제주 이호항 테우해변의 명물 이호테우목마등대로 조성된 포토존을 조성했다. 제주 흑돼지 소세지, 감귤식초, 한라봉쥬 등 현지 특산품을 시식, 구매할 수 있는 제주마시 로컬마켓을 운영한다. 아트마켓과 무료 체험공방, 렛츠런 톨렛게임, 제주를 잡아라 에어볼 게임 등의 체험거리도 있다.

경마 최강팀 선발전 19개팀 결선행

2018년 경마 최강팀 선발전 결선에 서울 9개, 부경 10개 마방 총 19개팀이 진출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스포츠성 제고와 마방 전문 인력 등의 노고를 알리기 위해 2016년부터 최강팀 선발전을 시행하고 있다. 8월 예선과 10월 본선을 거쳐 12월16일 결선을 통해 결정된 1위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2위와 3위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진짜 말춤 보러 와요” 홀스댄싱 뮤지컬 개봉박두

내달 16~18일 렛츠런파크 서울 공연
승마 기술과 스토리 결합 새 장르 개척

국내 최초로 ‘홀스댄싱’(Horse Dancin g) 뮤지컬공연이 열린다.

한국마사회는 트렌디한 댄스음악에 화려한 승마기술과 감동 스토리를 결합한 국내 최초 홀스댄싱 뮤지컬공연 ‘Ride For Life’를 11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 실내마장 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16일과 17일은 저녁 7시, 18일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하며 약 한 시간 정도 공연한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활성화와 승마 대중화를 위해 2013년부터 해마다 말 문화공연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준비한 ‘라이드 포 라이프’(Ride For Life) 공연은 말 문화공연의 6번째 작품으로 그간의 경험을 발판삼아 ‘홀스댄싱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다.

홀스댄싱은 팝과 클래식, 국악,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맞춰 말과 사람이 함께 플라멩코, 현대무용, 비보잉 등의 댄스를 추는 종합 승마 공연이다. 싱글 및 듀엣 마장마술, 플라잉 퍼포먼스와 군무퍼레이드가 접목된 공람마술, 비월마술 등 고난도 승마기술이 총동원될 예정이다. 또한 자체 음악 제작을 통해 뮤지컬이라는 종합예술로 업그레이드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한국마사회의 대표적인 공익사업인 재활·힐링 승마를 테마로 했다. 직업이 소방관인 주인공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에 시달리던 중, 조선시대 시간을 뛰어넘어 간다는 판타지극이다. 조선시대 소방관인 ‘별화군’으로 분해 말과 함께 화재를 진압하며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게 된다는 줄거리다.

실제로 한국마사회는 8월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높은 업무강도와 재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관 1000여 명에게 재활승마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익사업을 진행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국내 최초 홀스댄싱 뮤지컬 ‘Ride For Life’는 한국마사회가 새롭게 개척한 공연 장르로, 승마 대중화와 말산업 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2018 말문화공연 ‘Ride for Life’의 티켓 가격은 전석 1만원이며, 현재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과천시민, 승마인(기승능력인증제 소지자), 공연당일 렛츠런파크 서울 입장권 소지자 등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용운 기자



국내 최초 홀스댄싱 뮤지컬공연 ‘Ride For Life’가 11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서울 실내마장 공연장에서 열린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마사회, 말산업 인재양성 해외연수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학생들의 말산업 선진국 해외

연수(사진)를 실시한다. 말산업 분야별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기초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41명이 조를 이뤄 7일부터 12월2일까지 프랑스 아하 두 팡 국립 마사 학교에서 2주간 참여형 실습교육을 받는다. 말생산기술, 모마와 신생마 건강관리, 어린말 조련, 말 관찰·행동학, 말 외양·결음걸이 관리·평가법, 조마사 훈련 등 말 생산·육성·조련·이용 전 단계에 걸친 선진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축구팬 69% “첼시, 안방서 맨유 잡는다”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 중간 집계
“리버풀이 허더즈필드 꺾는다” 87%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20일(토)부터 22일(월)까지 벌어지는 국내 프로축구 K리그1 6경기와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에서 국내축구팬들은 첼시(홈)-맨유(원정)전에서 68.50%가 홈팀 첼시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측은 19.04%로 나타났다. 원정팀 맨유의 승리 예측은 12.46%를 차지했다. 리그 상순세 첼시, 맨유 상대로 지난 상대전적에서 우위. 원정경기 펼쳐지는 리버풀 이번 회차 최고 투표율 기록했다.

이번 시즌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첼시와 맨유가 맞대결을 펼친다. 현재 첼시는 리그에서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으며, 6승2무로 리그 2위에 올라있다. 반

대로 맨유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8위(4승1무3패)라는 중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허더즈필드로 원정경기를 떠나는 리버풀은 87.29%로 이번 회차 최고 투표율을 얻었다. 양팀의 무승부(7.52%)와 허더즈필드타운의 승리 예상(5.19%)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K리그에서는 안방경기를 치르는 경남FC(68.50%)와 울산현대(72.16%)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고됐다. 뒤이어 K리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현대(67.63%) 역시 과반수이상의 투표율을 선보였다.

반면 수원삼성-포항스틸러스전은 양팀의 무승부 예상(38.65%), 수원삼성 승리 예상(30.86%), 포항스틸러스(30.50%)로 나타나 가장 승부 예측이 어려운 경기로 예상됐다.

이번 승무패 30회차는 오는 20일 오후 1시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당신의 스포츠를 응원해드리오’ 열풍

케이토토, 생활스포츠 캠페인 인기
18일 만에 조회수 2만3000건 돌파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실시하고 있는 2018 스포츠토토 생활스포츠 활성화 캠페인인 ‘당신의 스포츠를 응원해드리오’가 18일 만에 조회수 2만 3000건을 돌파하며 체육인들의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1일부터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18일 오전 9시 현재 조회수 2만3377건을 기록 중이며 실제 참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의 경우 본인에게 적합한 운동을 추천해 주는 테스트와 함께, 실제로 숙련된 전문가들의 특별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생활체육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케이토토가 이번에는 많은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



비했다. 캠페인에 참여해 건강도 지키고, 푸짐한 경품의 행운까지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루과이·파나마와의 A매치 소액 베팅 문화 정착 돋보여

스포츠토토 참가자들은 우루과이와 파나마를 상대로 한 축구 국가대표 A매치에서도 소액으로 건전하고 성숙한 참여문화를 보였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지난 12일과 16일에 열린 국가대표 평가전 한-우루과이전과 한-파나마전을 대상으로 연속 발매한 축구토토 매치 게임 2개 회차에서 1인당 평균 참여금액 6000원대를 기록하며 건강한 소액참여문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호 우루과이의 방문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은 매치 8회차에서는 무려 3만 8,745명이라는 많은 축구팬이 참여했지만, 참여여기외는 달리 평균구매금액은 단 6,553원으로 가볍게 게임을 즐긴 것으로 집계됐다. 우루과이전 승리로 탄력을 받은 파나마전으로 시행한 9회차는 다소 감소한 2만7,942명의 축구팬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금액 또한 6,051원으로 더욱 줄어든 수치를 선보였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